

## “약자의 존재는 사회의 짐인가?”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성경봉독** : 신명기 24장 19~21절

※ 아래의 질문들은 각 구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넣고 빼가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 한가지씩을 우측에 앉으신 구역원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한 주간동안 묵상한 큐티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좌측에 앉으신 구역원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3. 지난 주일영광예배때 나눈 말씀을 삶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4. 모세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아내가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써주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유로 아내를 내쫓고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하려는 남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고 말씀하나요?  
(마 19: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_\_\_\_\_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5. 어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 그는 언제까지 아무 직무도 없이 군대에 가지 않고 한가하게 집에 있어도 되나요? 알맞은 번호를 고르세요. (신 24:5)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6. **신명기 24장 14절**부터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품꾼을 대할 때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때 가난한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신 24:15) “그 품삯을 \_\_\_\_\_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7. **신명기 24장 17절**에서 과부와 고아를 대하는 태도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구역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알맞은 번호를 고르세요.
- 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
  - ② 과부와 고아는 항상 자신을 돌볼 수 있으므로 조금 소홀히 대해도 괜찮다.
  - ③ 정의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 ④ 과부와 고아는 호소할 곳이 없기에 조금 억울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8.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역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알맞은 번호를 고르세요. (신 24장 18절, 22절)
- ①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기 위해
  - ②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약자를 돕기 위해
  - ③ 애굽에서 배웠던 문화를 따르고 계승하기 위해
  - ④ 자신들이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9. 신명기 24장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를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나누어보세요. 예시: **지역봉사 참여**(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교회나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자원을 제공합니다.)

**\* 합심기도 :**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2.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3.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도 어느 때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잊지 않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218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목사)